

Date: 26 Tishrei 5787 (October 7, 2026)

Torah Portion: B'reshet

Topic: 창조된 세상, 파괴된 세상 – 제 1 부

인간 발명가가 새로운 발명품을 구상할 때, 그는 먼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기본 원리를 검토하며,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막상 발명품을 가동했을 때,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명가는 그것을 분해하고, 부품을 점검하며, 자신의 가정을 시험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함을 수정한 후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이 의도한 완벽함에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실험과 개선 과정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여호와 엘로힘께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연에 예정하신 법칙의 결과를 간과하시거나, 그분의 피조물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하신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무지한 부분이 있으셔서 실험을 하시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인류가 이미 발견했던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간에—그분의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인지력 밖에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전들은 엘로힘께서 현재의 세상을 세우기 이전에 여러 세상을 창조하셨고 파괴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베레쉬 라바(3:7)는 창조주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가 파괴하시며, 현재의 창조물에 대해 "이것은 내 마음에 드나, 저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조하르(Zohar) 또한 지속되지 못했던 이전 세상들에 관한 신비로운 세계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실패한 창조 시도의 증거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를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신성한 지혜의 결핍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목적에 있습니다. 구전 기록에 따르면, 창조는 토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토라는 신성한 뜻을 드러내며, 인류가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덕적, 영적 질서를 확립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는 자유 의지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계명은 그 도덕적 의미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이 전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여호와, 엘로힘께서 어떻게 의로움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시거나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유 의지는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창조 설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리적 우주가 확립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도덕적 우주는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실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기 전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것을 제안하셨으나, 그들이 모두 그 의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가르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따르겠습니다"(출 24:7)라고 선언하며 토라를 받아들였습니다.

탈무드는 더 나아가 창조 그 자체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토라를 거부했다면, 세상은 'תהו ובהו' 토후 바-보후; tohu va-vohu', 즉 형체도 없고 텅 빈 태초의 상태로 되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 샤바트 88a).

이러한 틀 안에서, 현인들이 묘사한 이전의 세상들은 창조, 도덕적 자유,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수용 사이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적 해석은 이 세상들이 토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전 문명에 대한 명시적인 역사적 기록이라기 보다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즉, 신성한 목적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창조된 본래의 온전한 존재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상들의 멸망이 반드시 엘로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가 단지 물리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뜻과의 유동 인과적 관계를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비록 놀라운 아름다움과 복잡성, 물질적 풍요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의로움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신성한 영적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불완전한 상태의 연장일 뿐입니다.

살롬